

성인 농인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실제*

- 수어 의미론을 중심으로 -

윤 석 민 (전북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수어 의미론 교육과정의 실제 |
| 2.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 4. 나가는 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수어 의미론을 중심으로,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수립이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 기관에 따라 또는 교육 수요자에 따라 임시 방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 내용 역시 단순히 수어 단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수어 전반에 대한 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농인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과정, 특히 농인 중에서도 농인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개발의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수어 의미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실제 모습을 제안하고 있다. 올바른 한국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대상을 명확히 하고 교육 목표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 요소를 교육 단계에 맞추어 한국수어에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 한국수어, 성인 농인, 교육과정, 교육목표, 내용요소, 교육 방법, 수어의미론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수어 의미론을 중심으로, 성인 농인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방향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수어의 교육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립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그러한 시급성으로 인하여 성인 농인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과정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각장애 아동 및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럽다.¹⁾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농인 세대, 특히 한국어나 한국수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인 농인을 위한 교육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청인이나 농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도 소통 수단으로 한국수어를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다. 일반적인 한국수어 교육과정을 확대, 적용할 수도 있으나 특히, 교육 수요자

1) 2015년 학교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2016년 초등학교 3~4학년군과 중고등학교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재 편찬 및 지도서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7년에 일차 성과물의 제출되었으며 후속 작업들도 이어지고 있다.

가 성인 농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수어 교육의 전반적인 교육 내용이 주로 수어 단어를 국어 단어와 대응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어 단어는 어휘 교육 차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떤 어휘를 어떻게 구분하여 가르칠지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선정되는 어휘 역시 교수자 또는 교수 기관에 따라 달라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실제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국수어 표현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어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여 문장 의미를 구성하며 이것이 실제 수어 표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의 한국수어 교육이 수어지식 부분에서 수어 의미론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수어 의미론 부분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것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다. 농인들의 오랜 바람이었고 거의 10여년의 노력 끝에 2016년 2월 3일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 시행되었다.²⁾ 이를 통해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일하게 한국의 농인들이 사용하는 공용어로 명시되어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제1장 총칙에서 한국수어의 위상과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한국수어의 위상과 정체성과 관련된 <한국수화언어법> 규정

7. [제1조(목적)] :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

- 2) 한국수어법의 제정을 위한 농인의 노력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하여는 윤병천(2018)의 1. 한국수화언어법 진행과정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에 따르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08년이니 그 이전의 준비 과정을 포함하면 거의 10년이 되는 셈이다.

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돈음 및 밑줄 필자. 이하 동).

- 나. [제2조(기본이념)] : ① 한국수화언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다. [제3조(정의)]: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위 (1)은 첫째, 한국수어는 국어와 함께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농인이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이며 둘째, 한국수어는 농인 및 농사회의 정체성의 핵심이며 셋째, 농인은 한국수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여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³⁾

한국수어가 농인 및 농사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것이라면 이를 배우고 익혀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이를 위해 <한국수화언어법>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수어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한국수어의 교육과 관련된 <한국수화언어법> 규정

- 가.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한국수어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2017)의 제2장 한국수어 연구의 필요성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ㄴ.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2)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는 농인 및 그 가족 등 관련자가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최상배 외(2017)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다양한 국내외의 수어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교육영역을 수어 기능, 수어 지식, 수어 태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곳에서 제시된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체계에 대하여 수어지식 영역에 속하는 수어 의미론을 중심으로 그러한 체계 수립의 정당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교육과정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수어의 교육에 앞서 교육내용상 합의가 필요한 근본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⁴⁾

4) 교육과정 중 내용요소에 대한 이견에 대하여는 주로 주석을 통하여 제기할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구분과 같은 체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에 담긴 내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용 문제는 교육과정 체계 수립 못지 않

2.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한국수어 교육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이 문제가 많다.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수어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한 모형을 제안해 볼 것이다.

2.1. 한국수어의 교육 현황과 문제점

한국수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서 농사회의 주요 소통수단이고, 농문화 수립의 기초이며 확대 수단이라면 한국수어 교육 역시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 교육현장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는 농학생의 교육현황을 보면 그러한 우려의 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농학교 학생 수 변화⁵⁾

연도 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2008	1,189	739	938	2,876
2011	1,049	918	1,579	3,562
2014	976	808	1,779	3,563
2016	863	700	1,816	3,401

위 (3)을 보면 전반적인 농학생의 숫자는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지만 특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농학생보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숫자가 늘고 있으며 그 가운데도 일반학급에 있는 농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계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이를 해결하기에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주석에서 논의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를 기대한다.

- 5) 이 자료는 교육부의(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와 이윤하(2018)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특수학교에서는 농학생 또는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이 제공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학교에서는 청각적 특성이 다른 학생과 섞여 거의 아무런 교육적 편의도 제공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편성 과정에서 이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의 방식면에 있어서도, 청인과 농인이 함께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재로 같은 교사에게 교육받는 현재의 통합교육 체제는 농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농학교 즉, 청각장애 특수학교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농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립 농학교 교사의 순환근무제이다. 이는 공립 농학교 교사들도 일정한 기준 연한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때 농학교 교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특수학교로 전환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인 교사의 경우 특수학교 가운데 농학교가 아니라 시각장애학교나 지적장애학교, 정서장애학교 등 다른 장애학교에 배치되는 일이 발생한다. 반대로 농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전환 배치로 한국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⁶⁾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 2001년에 도입된 ‘통합특수교사 자격증’ 제도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제도에는 교육수단으로서 시각언어인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수성이 배제되어 있다. 다른 장애학교의 교육이 음성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농학교 및 청각장애학교에서는 그것을 통하여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

6) 농학교의 교원 인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민병화(2018)의 4. 교육 제도의 문제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7) 국립특수교육원(2014)의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학생의 보호자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담당교수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무엇보다 농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수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농아동 및 농학생을 위한 수어교육 현장의 경우보다 더욱 열악한 것이 성인 농인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농학생을 위한 교육은 비록 문제가 있지만 곳곳에 분포한 교육 기관이나 전문적인 교사 및 통일된 전문 교재와 교수법 등이 제공되지만 성인 농인을 위한 교육 제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물론 각 지역의 농아인협회나 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농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 및 직업 관련 활동인 경우이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최상배 외(2017)에 따르면 성인 농인을 위한 수어 교육은 2000년대 후반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성인 농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성인농인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수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부족했다. 수어 교육은 한글의 보조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함께 교육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한국수어만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것도 다양한 수준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지금은 각 지역의 농아인협회나 수어통역센터를 중심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⁸⁾

다만, 이러한 교육이 각 지역별로, 수준별로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교육적 목적 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지가 많다. 교육주체(교수자 및 교수대상)가 누구이며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하고 어떤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가 먼저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성인 농인을 위한 한국 수어 교육과정의 모형 수립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8) 서울수어교육원은 2009년 설립과 함께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동원하여 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입문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수준을 나누어 교육할 뿐만 아니라 농인 강사가 농인 및 청인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상배 외(2017) pp. 16~18.

2.2.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모형 제안

교육과정이란 사회적 지향점과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학습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일련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의 교육과정에도 그러한 측면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농인 및 농사회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회적 소통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농인이 가진 정체성을 바탕으로 농인에게 맞는 교육내용과 방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곳에서는 어떤 것이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모형을 세우는 데 필요할 것인지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교육방법, 교육시간’ 등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성격은, 농인 성인 스스로 한국수어가 농인 및 농사회의 제1의 의사소통 수단임을 인식하고 한국수어의 내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외적 활용 방식을 익혀 더 나은 의사소통 능력과 수어 사용자로서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한국수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목적은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가 스스로 한국수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모든 생활영역⁹⁾에서 효과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인 성인들의 경우 한국수어 사용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적 경험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수어 사용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자신의 특성 즉, 농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수어 교육은 농인에게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수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활용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수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9) 모든 생활영역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제3항 참조.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크게 교육 영역과 교육 단계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먼저, 교육 영역에서는 한국수어에서도 일반적인 국어 교육과정의 교육 영역과 같이 기능과 지식 및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¹⁰⁾ 이에 따르면 수어 기능은 실제 생활에서 수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크게 수어이해, 수어표현, 수어소통¹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어지식은 수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다루는 부분으로 수어 음운론, 수어 형태론, 수어 구문론, 수어 의미론, 수어 화용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그리고 수어태도는 수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으로 농문화 이해, 농사회 이해, 농정체성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4)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교육영역

수어 기능	수어 지식
- 수어 이해	- 수어 음운론 - 수어 형태론
- 수어 표현	- 수어 구문론 - 수어 의미론
- 수어 소통	- 수어 화용론
수어 태도	
- 농문화 이해	- 농사회 이해 - 농정체성

교육 단계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일반적인 국어교육과정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의 체제에 대하여는 최현섭 외(2006)을 참조할 수 있는데 한국수어 교육 역시 언어교육이므로 이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11) 최상배 외(2017)의 상호 의사소통을 이렇게 바꾼 것이다. 원래 이 영역은 수어를 이용하여 대화하며 대화 참여자 간에 소통하는 것을 다룬다. ‘소통’이란 뜻이 이미 대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하위 영역의 제목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렇게 바꾸기로 한다.
- 12) 수어의 언어학적 하위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수어 음운론과 형태론의 구분과 내용요소에 대하여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정도이다. 여기서는 최상배 외(2017)의 구분을 따르기로 한다. 다만, 용어는 음운론, 형태론 등을 수어 음운론, 수어 형태론 등으로 바꾸기로 한다.

(5) 국외 수어 교육단계 현황¹³⁾

국가	교육과정		교육단계
미국	갈로데 대학교		4단계(ASL I, II, III, IV)
	볼더벨리학교군		5단계(중급중, 중급하, 초급상, 초급중, 초급하)
	모어로서의 수어교육과정		3단계(충족, 우수, 월등)
	미국수어교사협회		4단계(K-4, 5-8, 9-12, 중등이후)
	로체스터기술연구소		4단계(ASL I, II, III, IV)
유럽	PRO-SIGN프로젝트		3단계(기초수준, 독립사용수준, 능숙사용수준)
일본	메이세이 농학교	유치부	통합단계
		소학부	3단계(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부	3단계(1학년, 2학년, 3학년)

위 (5)의 교육과정 단계를 살펴보면 학습 연령과 기존 학교 교육 체제를 고려하여 단계를 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한국수어 교육과정을 위한 별도의 교육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를 고려하면 우선 일반적인 언어 교육의 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언어학습의 학습자 수준과 그들이 학습을 통해 달성할 성취목표를 고려하여 교육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교육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단계(한국수어 사용 경험이 없거나 짧은 사람을 위한 교육과정)와 2단계(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과정)와 3단계(한국수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농사회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과정)이 그것이다. 이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이곳의 현황은 최상배 외(2017)의 제2장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부분을 이 글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각 교육단계의 내용 및 교육 목표 등은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6)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교육단계

교육단계	교육대상	교육목표
1단계(초급-기초)	한국수어 사용경험이 없거나 짧은 사람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수어소통 능력 학습
2단계(중급-기본)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	농인 및 농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맥락에서의 수어소통능력 학습
3단계(고급-심화)	한국수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사람	한국수어 및 한국농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수어소통 능력 학습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교육방법은 교육 단계별, 학습자 대상별, 교실 환경별, 교육내용별 등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어 교육이 몰입교육(total immersion)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수어만을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좋다. 수업 중에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르는 수어 단어를 질문할 때도 제스처나 지문자를 사용하는 등 음성언어 사용을 가급적 방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학생 상호 간의 질문에서도 수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초급단계 학습자의 경우 지문자를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수화를 배울 때는 먼저 그림이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한 후 나중 복습 단계에서 대응하는 한국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면 수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교수자의 수어 능력에 대한 것이다. 수어를 사용하는 교수자라 하여도 농인인 경우가 더 한국수어에 적합한 수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인의 경우 그가 활용하는 수어가 진정한 한국수어(KSL) 즉, 농식 수어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청인들이 농식 수어가 아닌 문장식 수어 즉 한국어 대응수어(Signed Korean)을 사용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농인 교수자가 중심이 되고 한국수어

능력이 있는 청인이 보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⁴⁾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따라 편성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1주 3시간 15주 교육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뒤(제3장)에서 다룬 교육내용 역시 단계별로 이와 같은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수어 교육과정에서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교육시간에 랩(lab)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¹⁵⁾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갈로데 대학의 경우에도 각 단계에서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이수하려면 교실 수업 37시간과 랩 활동 75시간을 합쳐 112시간을 받아야 한다. 랩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수어 실례를 접함으로써 수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에 수어 활용 능력을 키우는 활동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3. 수어 의미론 교육과정의 실제

이 장에서는 한국수어 교육과정 가운데 수어 의미론 부분에 담길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요소별로 실제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 내용을 소개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활동 및 평가 방식을 간단하게 제시할 것이다. 교수자들은 이곳에서의 내용요소나 교육 방법 및 평가를 활용해 단계별로 교육목표에 맞는 실제 교재를 개발하거나 그에 따른 교수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4) 이는 학습대상자가 농인이나, 청인이나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다. 교수자의 교수 능력도 중요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수어를 교육할 때 그것을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15) 최상배 외(2017)에서도 교육시간을 설명하며 외국의 사례에서 랩 시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모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한국수어 교육과정 가운데 수어 의미론의 내용요소는 어휘 목록, 어휘의 미론(의미유형/어휘관계/의미변화), 문장의미론(문장의미/문장특성/관용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수어 의미론의 목표는 수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수어의 의미론적 특성 즉, 어휘나 문장의 의미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는 학습자의 성취 단계를 고려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7) 수어 의미론의 단계별 교육목표

- ㉠. 1단계: - 한국수어 어휘 의미와 문장 의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수어와 국어의 의미론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 ㉡. 2단계: - 한국수어 어휘 의미와 문장 의미의 세부적인 개념과 분류를 이해할 수 있다.
 - 해당 예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 ㉢. 3단계: - 한국수어 표현의 어휘 의미와 문장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수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다.

3.1. 어휘 목록

어휘 목록은 내용요소상 수어 의미론에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 내용을 고려하면, 수어 형태론이나 수어 통사론 또는 수어 의미론 등 어느 곳에서든 필요한 교육 내용요소이다. 각 수어 지식을 다루는 각 내용요소의 단계별 교육을 위해 어휘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단계별 어휘 목록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어의 어휘 목록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수어 어휘

16) 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교육시간이나 교재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기본적인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가 모두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⁷⁾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연구 및 통계 자료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수어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한국수어 어휘 목록 체계는 기존의 수어 사전에 수록된 어휘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¹⁸⁾ 또한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고려할 때, 수준별 한국수어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인 어휘의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의 제시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8) 한국수어 어휘 자료

- ㄱ.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2017. <http://sldict.korean.go.kr>
- ㄴ.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 한국수화사전, 2005,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위 (8)에 실려 있는 약 9,000여 개의 어휘와 기타 자료에서 확보한 것을 포함하여 약 12,000 개를 대상으로 어휘 형태(단일어/복합어)와 사용 빈도, 사용분야(일상어/전문어/특수어) 등을 기준으로 교육에 활용할 어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아래에서는 이를 기준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성취 단계의 어휘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이다.

[1단계]

이 단계에서 활용될 어휘들은 기초 어휘 중 고빈도어에 해당하면서 일상생

17) 현재 한국수어 말뭉치가 구축 중에 있다. 2015년에 시작되어 서울 및 경기지역 수어가 이미 수집되었고 현재는 나머지 지역의 말뭉치를 구축 중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한국수어의 어휘수나 어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분명해질 것이다.

18) 한국수어사전에 대한 농사회의 평가는 비교적 냉정한 편이다. 실제 농식수화가 아니라 한국어 대응수화가 많이 포함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더 나은 한국수어사전의 편찬을 기대한다.

19) 한국수화사전(2005)에는 6,800개의 어휘가 표제항으로 등재되었다.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은 지속적으로 어휘가 보강되어 2018년 8월 현재 일상생활 어휘수가 12,685개에 이른다.

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삼촌/고모>,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학/방학>, <가르치다/배우다>, 직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출근/퇴근>, <월급/보너스>²⁰⁾ 등과 같은 어휘가 활용될 수 있다. 이들은 농인 성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친숙한 어휘의 부류이다.²¹⁾

활동 및 평가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빈도 어휘를 더 찾아보고 그 특징을 얘기해 보기
- 가정, 학교, 직장 속 역할을 통해 고빈도 어휘 사용하기

[2단계]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기초 어휘 가운데 1단계 수준의 어휘보다는 사용빈도가 떨어지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어휘들이다. 특히, 농사회에 밀접한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등이거나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기도>, <구원>, <성경>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빈도가 1단계 수준의 어휘보다 떨어지지만 성인 농인의 경우 대부분 알아야 하는 어휘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활동 및 평가

- 공공기관의 직원과 방문객이 되어 역할극 해보기

20) 국어 어휘와 달리 한국수어 어휘는 < >로 묶어 제시하기로 한다.

21) 여기에 선택된 어휘들은 성인 농인을 학습대상으로 하여 선정된 것이다. 농아동이나 농학생과 달리 농인 성인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이다.

[3단계]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1, 2단계 수준의 어휘보다 사용빈도가 떨어지면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시사, 금융, 법률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휘이다. 따라서 이런 어휘는 대부분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휘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적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어휘이지만 해당 전문 분야의 이해에 필요한 어휘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어휘의 예로는 시사 분야의 <민주주의>, <선거구>이나 금융 분야의 <가계>, <정기적금>, 법률 분야의 <가정법원>, <고소> 등이 있다.

활동 및 평가

- 시사, 금융, 법률 관련 신문을 읽고, 모르는 어휘를 사전으로 찾아보기
-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수어 전문어 찾아보기

3.2. 어휘 의미론

한국수어의 교육과정에서 어휘 의미론 부분은 크게 의미 유형, 의미 관계, 의미 변화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들은 어휘 의미를 다룰 때 기본적인 내용요소로서 의미 유형은 어휘가 가지는 의미의 내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 의미 관계는 어휘 사이의 관계가 결국 의미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데 적합하며 의미 변화는 한국수어 어휘의 의미가 변화되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3.2.1. 의미 유형

어휘 교육의 목표는 어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수어 어휘에 대한 교육에 있어 한국수어의 다양한 의미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의미인 개념적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 수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연상적 의

미나 주제적 의미 유형까지 교육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이 단계에서 어휘 의미 교육은 개념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개념적인 의미란 누구나 동일하게 알고 사용하는 공통적인 의미를 말한다.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수어가 지닌 의미 가운데 개념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먹다>는 [음식물 따위를 입을 통해 배 속에 들여보내다]²²⁾는 뜻으로 누구에게나 이해된다. 이런 개념적 의미는 대개 수어사전 등에 나와 있는 뜻과 같다. 1단계에서는 이처럼 수어의 개념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활동 및 평가

- 수어사전으로 어휘 의미 찾아보기

[2단계]

이 단계에서 어휘 의미 교육은 연상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상적 의미란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를 말한다. 개념적 의미와 달리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의사소통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먹다>의 경우, 이것이 밥이나 국수 등 음식물에 따라, 단순히 [음식물을 먹다]라는 기본의미로 사용되기보다 [밥을 먹다], [면을 먹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어떤 어휘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내는 연상적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단계가 2단계이다.

22) 한국수어의 의미는 [] 안에 넣어 표시하기로 한다.

활동 및 평가

-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 찾아보기
- 어휘의 개념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의 차이를 설명해보기

[3단계]

이 단계의 어휘 의미 교육은 주제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제적 의미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 의미를 말한다. 사용자의 수어 사용 의도에 따라 같은 어휘의 의미가 달라진다. 주제적 의미가 개념적 의미나 연상적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기쁘다>의 경우, 개념적 의미 외에 동작의 속도나 표정과 같은 비수지 특성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밝고 환한 표정의 비수지 기호와 함께 <기쁘다>를 사용하면 [무척 기쁘다]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반면 수동을 천천히 하며 얼굴에 씩은 표정을 지으면 [별로 기쁘지 않다]라는 수어사용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주제적 의미이다.

활동 및 평가

- 비수지 기호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수어 의미 차이 비교해보기
- 주제적 의미를 활용하는 표현을 만들어 보고 다른 표현과 비교해보기

3.2.2. 어휘 관계

한국수어 어휘들은 서로 다양한 의미 관계를 가진다. 어떤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어떤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또 대부분의 단어는 다른 단어와 의미상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등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수어 어휘 교육에서도 단어와 의미 사이의 관계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단계]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단어들이 서로 관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관련성은 대개 그 단어의 의미가 관련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주다>와 <받다>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단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관련성은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단어는 방향만 다를 뿐 수어 동작이 비슷하여 기본적인 의미 특성이 같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주다>와 <학교>는 관련성이 덜 느껴지는데 이는 두 단어의 의미에서 서로 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활동 및 평가

- 하나의 표현과 관련 있는 표현 찾아보기
- <주다>와 <받다>의 의미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2단계]

이 단계에서는 상의어(의미상 하의어를 포함하는 단어)와 하의어(의미상 상의어에 포함되는 단어)가 보이는 의미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해하는 중점을 둔다. 상의어와 하의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해당 예시들을 설명하며 이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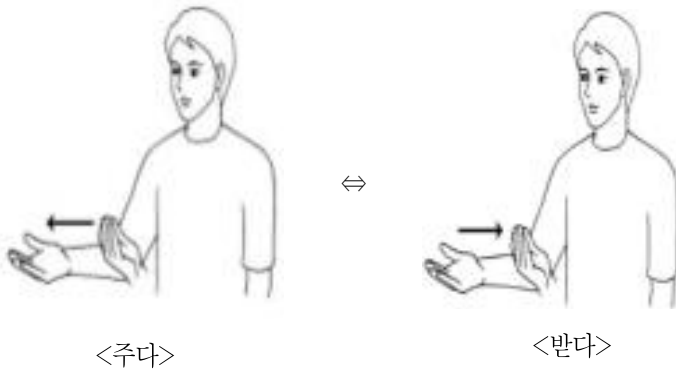
예를 들어, 한국수어 <동물>, <개>, <고양이>는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한 관련은 <동물>의 의미에 <개>나 <고양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때, <개>와 <고양이>를 포함하는 <동물>은 포괄적인 뜻을 가진 ‘상의어’이며, <개>와 <고양이>는 <동물>에 포함되어 있는 ‘하의어’이다.

활동 및 평가

- <동물>의 하의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찾아보기
- 상의어와 하의어 관계를 보이는 다른 수어의 예를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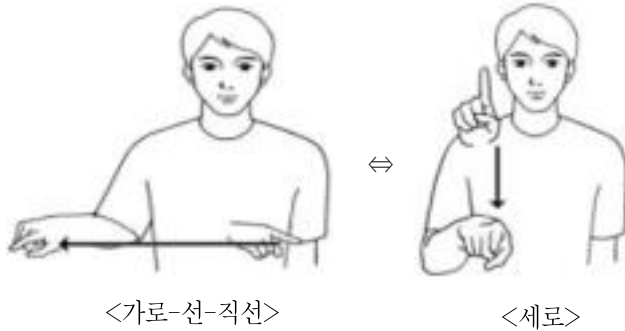
[3단계]

이 단계에서는 어휘 의미 관계 가운데 반의어와 다의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반의어란 의미상 서로 반대가 되는 단어를 말하며 다의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주다>는 [어떤 것을 수어자가 남에게 건네어 가지게 하다]를 뜻하고 <받다>는 [어떤 것을 수어자가 남에게서 받아 가지다]를 뜻하여 의미상 서로 반대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맞다>와 <틀리다>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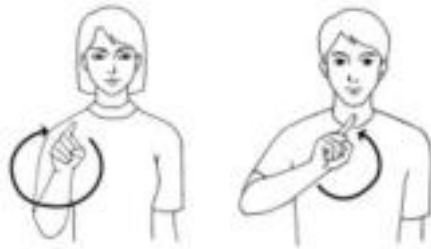
<그림 1> 수어 반의어의 예

또한 다의어의 경우 한국수어 <가로>는 [가로]의 의미와 [직선] 또는 [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의 수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다의어라고 하며 각각의 의미들은 다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다의 관계에 있는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다의어는 그 뜻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반의어도 가질 수 있다.



<가로-선-직선>

<세로>



<원>

<곡선>

<그림 2> 수어 다의어 및 해당 반의어의 예

활동 및 평가

- 수어의 반의어가 가지는 특성을 알아보기
- 수어사전에서 다의어를 찾아 그 의미를 구별해보기

3.2.3. 의미 변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의미가 변할 수 있다. 어휘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면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어휘는 그대로지만 의미가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 수어들도 의미 변화의 결과일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어의 의미가 변화되는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1단계]

이 단계에서는 한국수어 가운데 의미가 변화된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의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미 변화란 어떤 어휘의 의미가 원래와 달라져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원래 쓰이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 후 그것이 굳어지면 의미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수어의 <나쁘다>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코끝을 왼쪽으로 스쳐내는 동작으로 표현되는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나쁘다]를 나타내던 것이 지금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중립적으로 [나쁘다]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1~5지를 모두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그런 동작은 없어졌다.

활동 및 평가

- <나쁘다>의 의미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2단계]

이 단계에서는 어휘가 의미변화를 입어 결과적으로 의미가 원래보다 확대/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는 경우(‘전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나쁘다>는 원래 [(정도가 낮은) 나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정도와 상관없이) 나쁘다]의 의미로 점차 변화되었다. 이러한 <나쁘다>의 경우, 원래 ‘정도가 낮은’만을 의미하던 것이 ‘정도가 낮은 것과 높은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확대’의 의미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독>을 나타내는 한국수어의 경우, 원래 수형은 [주전자]의 의미를 가지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주전자>의 수형을 유지하면서 5지를 입에

대는 동작을 더하여 [중독] 또는 [마약]의 의미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우, 변화한 의미인 [중독] 또는 [마약]은 원래 의미인 [주전자]와 비교하여 볼 때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된 것이라기보다 아예 다른 의미로 바뀐 것(‘전이’)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 및 평가

- <나쁘다>와 <중독>의 의미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보기
- 의미가 확대/축소되거나 전이된 수어를 찾아보기

[3단계]

의미변화의 결과 가운데는 원래 의미와 비교하여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의미변화의 결과 긍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처럼 의미 변화한 결과가 ‘긍정’과 ‘부정’의 의미 가치를 만드는 경우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중독>은 원래 [중독]을 나타내지만 “<지금-독서-중독>[요즘 독서에 중독됐어]나 “<그-여자-나-중독>[그녀에게 난 중독되었어]”의 <중독>처럼 좋은 일에도 사용되면서 점차 의미가 변화하여 [(어떤 일)에 푹 빠질 정도로 좋아하다]의 의미까지 나타내게 되었다. 이 경우, 한국수어 <중독>은 원래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활동 및 평가

- 의미변화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예시를 찾아 분류하기
- 의미가 달라진 수어를 찾아 그 원인을 분석하고 토론해보기

3.3. 문장 의미론

한국수어의 교육과정에서 문장 의미론 부분은 크게 문장 의미, 문장 특성, 관용 표현의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문장 의미를 교육하는 데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장 의미는 한국수어 표현이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문장 특성은 국어의 문장과 달리 한국수어의 문장이 보이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관용표현은 한국수어에도 관용적 사용이 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3.3.1. 문장 의미

의미는 어휘 단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문장 단위에서도 다양한 의미가 표현될 수 있다. 더구나 실제 의사소통은 어휘보다 문장을 이용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이 단계에서는 문장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특히, 문장 의미는 단어 의미와 다르며 이들을 단순히 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문장 <철수-영희-부르다> [철수가 영희를 불렀다.]는 <철수>, <영희>, <부르다>라는 단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철수>, <영희>, <부르다>의 의미만 가지고는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사용되는 수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단어들이 합쳐져 만든 문장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문장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활동 및 평가

- 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단어카드로 만들고, 단어카드를 다르게 조합해 보면서 나타나는 의미 차이에 대해 발표해보기
- 대상의 공간 배치를 바꾸어 가며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2단계]

이 단계에서는 한국수어 문장의 기본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수어 문장의 기본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인 문장이다. 예를 들어 <철수-축구-좋아하다> [철수는 축구를 좋아한다.]와 같은 한국수어 문장은 주어인 <철수>와 서술어인 <좋아하다>가 결합한 문장이다. 이를 기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수어 문장의 기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하고 실제 수어 단어를 결합하여 기본문을 만들어 실제 대화에 사용해 보도록 한다.

활동 및 평가

- 한 개의 주어와 한 개의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직접 만들어서 대화해보기

[3단계]

이 단계에서는 문장의 확대 구조와 그에 따른 의미의 확대에 대하여 교육한다.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인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의미가 확대되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교육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장의 확대의미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문장 <철수-운동-좋아하다-영희-독서-좋아하다> [철수는 운동을 좋아하고, 영희는 독서를 좋아한다.]는 2개의 주어(<철수>와 <영희>)가 사용되었고 <좋아하다>라는 서술어도 두 번 반복되어 접속문을 형성한다.

활동 및 평가

- 각자 한 개의 기본문을 만들어보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자신이 만든 문장들을 조합해 접속문 만들어보기
- 기본문으로 표현할 때와 접속문으로 표현할 때의 의미 차이에 대해 토론해보기

3.3.2. 문장 특성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한국수어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 그런데 한국수어 문장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를 사용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수어 문장 특성에 대한 교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다.

[1단계]

이 단계에서는 한국수어 문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한국수어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기능어 대신 문장을 구성하는 수어의 어순이 중요하다.²³⁾ 어순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의 의미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예를 들어 <기차-빠르다>는 [기차가 빠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조사에 해당하는 수어가 따로 없다. 서술어 <빠르다> 앞에 놓이는 <기차>가 주어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장은 조사나 어미 없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문법적 기능과 역할이 주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23) 한국수어에서 문장 구성 시 어떤 어순을 따르는지 명확하게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윤희(2011)의 제2장 제1절 어순에 의한 문장성분의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주어-술어, 주어-목적어-술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세한 문장의 어순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논의가 더 필요함을 지적해 둔다.

활동 및 평가

- 단어카드 조합하여 문장 만들어보기

[2단계]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문장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교육 목표를 둔다.

한국수어에서 널리 쓰이는 문장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을 들 수 있다.²⁴⁾ 평서문은 <아버지-오다> [아버지가 온다]와 같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문장을 말하고, 의문문은 <저-남자-누구>²⁵⁾ [저 남자가 누구냐?]와 같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문장이며, 명령문은 <진실-말해라>²⁶⁾ [진실을 말해라]와 같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요구하는 ‘명령문’, <밥-먹자>²⁷⁾ [밥을 먹자.]와 같이 상대방에게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문’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문장의 형식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진다. 한국수어 문

24) 한국수어의 문장 유형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실제적인 수어사용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엄미숙(1996)에서 제시한 문장유형의 구분을 따른다. 다만, 해당 연구자 국어의 경우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혔듯이 한국수어 문장유형은 그 나름의 구조 분석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25) 이 경우 <누구>와 함께 <-나>같은 기능요소 없이, 눈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며 묻는 모양 같은 비수지 기호가 함께 사용된다. 의문문의 경우 상대방을 향한 눈 응시 등의 비수지 기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비수지 기호를 논외로 하기로 한다. 이하 같음.

26) <말해라>는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 별도의 표제항으로 등록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말하다>와 비슷하나 수어 동작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상대에 대한 요청의 얼굴모양이 함께 사용된다.

27) <먹자>의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 별도의 표제항으로 등록되어 있어 하나의 수어 단어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먹자>는 <먹다>+<-자>의 구성을 보인다. <보자> 역시 <보다>+<-자>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 <-자>를 청유형의 기능요소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차-빠르다> [기차는 빠르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 형식의 문장은 어떤 성분이 추가되느냐에 따라 여러 형식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책-보다> [철수는 책을 본다]의 문장에서는 <책>이라는 목적어가 추가되어, ‘주어-목적어-서술어’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철수-학생-아니다>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에서는 <학생>이라는 보어가 추가되어, ‘주어-보어-서술어’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및 평가

- 하나의 기본문으로 여러 종류의 문장을 만들어 대화해보기
- 단어카드를 조합해 다양한 형식의 문장 만들어보기

[3단계]

이 단계에서는 문장을 구성할 때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역할을 드러내주는 기능어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문장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한국수어는 기본적으로 조사나 어미와 같은 기능어의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으로 기능어가 사용된다. 한국수어의 <-자>, <-나> 등은 문장 끝에 놓이면 청유나 의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문장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기능어적인 사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²⁸⁾ 물론 이러한 의미는 눈빛이나 얼굴표정 등 비수지 기호와 함께 사용 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학교-가다-자> [학교에 가자]는 상대방에게 ‘학교에 가’는 행위

28) 이곳에서 든 <-자>나 <-나>는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는 별도의 표제항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주 26)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요소는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수화사전(2005)에서도 <-자>는 별도의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다. <말해라>의 경우처럼 문법적 기능을 별도의 <수어>로 나타내는 것도 한국수어의 특징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를 청유하는 문장의 의미를 나타낸다. <학교-가다> [학교에 간다]만 수행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청유문의 기능을 하는 요소가 <-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문문을 만드는 요소로 <-?>도 기능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평서문 <학교-가다> [학교에 간다]에 이 요소를 더해 <학교-가다?> [학교에 가냐?]가 되면 의문문이 만들어진다.²⁹⁾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능어가 무엇이며,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또한 기능어를 사용하여 실제 문장을 만들어봄으로써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활동 및 평가

- 한국수어 표현에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
- 기능어가 사용된 표현을 분석하여 기능어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보기

3.3.3. 관용표현

한국수어가 사용되는 대화에서는 일상적인 수어 표현과 함께 다양한 관용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관용표현은 ‘원래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 관용어, 관용구 그리고 속담이나 격언 등이 있다.

이러한 관용표현은 수어표현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수어수용자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은 의사소통 방식의 질적 능력을

29) <-냐>는 기능요소가 아니라 어휘 의미를 지니며 <질문>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학교-가다-냐>[지금 학교 가요?]처럼 의문문을 만드는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엄밀하게 기능요소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키우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1단계]

이 단계에서는 관용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관용어는 단어로 이루어진 관용표현이다. 어떤 단어가 원래의 뜻과 다르게 새로운 의미로 굳어져 사용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국어수어 <구슬>은 원래 ‘보석이나 진주처럼 둥글게 만든 물건’인데 상대방의 제안에 대하여 <나-구슬>처럼 사용되면, 이것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비아냥대며 [거절] 또는 [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뼈>는 원래 ‘살 속에서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물질’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맥락에 따라 <너-말-뼈-무엇>과 같은 문장에서는 [핵심]이나 [중요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저의](底意)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관용어를 중심으로, 관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제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활동 및 평가

- 다른 관용어를 찾아보고 그것이 원래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기

[2단계]

이 단계에서는 구(句)로 이루어진 관용표현인 관용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두 개 이상의 수어 단어들이 원래의 뜻과 다르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굳어져 사용되면 이를 관용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수어 <손-부러지다>는 <손>과 <부러지다>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그런데 그 의가 원래의 의미 그대로 [손이 부러지다]가 아니라 [매우 바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소문-1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문이 1초이다]라는 뜻을 넘어 [소문이

매우 빨리 퍼지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인다. 이 역시 관용구라고 할 수 있다.

활동 및 평가

- 관용구로 이루어진 관용표현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기

이 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지만, 그것들이 원래의 뜻을 넘어 새로운 의미로 굳어져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관용구를 실제 의사소통에 적용하여 사용해봄으로써 한 단계 발전한 의사소통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3단계]

이 단계에서 관용표현 교육은 속담과 격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속담이나 격언은 문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원래 그 수어의 뜻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금-이다>³⁰⁾ [시간은 금이다], <산(의 한쪽)-과다(반복)-보물-잡다> [한 우물을 파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음성어의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 수어로 표현한 속담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음성어와 구별되는 수어를 활용하여 속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수어 고유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속담과 격언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이를 활용해 대화해봄으로써 1, 2단계보다 심화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30) 이곳의 <이다>는 <같다>와 동형어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해석하면 [시간은 금과 같다]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여도 이것이 수어사용자에게 익숙한 속담이어서 '시간이 금처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활동 및 평가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속담이나 격언을 찾아보기
- 관용표현(관용어, 관용구, 속담, 격언)을 이용하여 대화 상황이나 이야기 만 들어보기

4. 나가는 말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수어 의미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수어 의미론의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한국수어 교육과정 중 수어 의미론의 교육목표

[목표]: 한국수어의 의미론적 특성 즉, 어휘 목록과 어휘 의미, 문장 의미와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단계- 한국수어의 기초 어휘 목록을 알고 어휘 의미와 문장 의미의 개념을 이해하며 국어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 2단계- 한국수어의 기본 어휘 목록을 알고 어휘 의미와 문장 의미의 세부적인 개념과 분류를 이해하고 이에 해당하는 예를 분석, 설명할 수 있다.
- 3단계- 한국수어의 심화 어휘 목록을 알고 어휘 의미와 문장 의미를 보이는 수어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한 수어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어 의미론의 단계별 목표에 따라 제안된 세부적인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 및 활동 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 한국수어 수어 의미론의 어휘 목록 세부 교육 과정

단계 내용 요소	1단계	2단계	3단계	
어휘 목록	초급 어휘 목록(가정/학교/직장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다.	중급 어휘 목록(공공 기관/종교단체 등 사회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알고 특성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급 어휘 목록(시사/금융/법률 등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어휘)를 알고 발표나 토론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삼촌/고모>, <개학/방학>, <가르치다/배우다>, <출근/퇴근>, <월급/보너스> 등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기도>, <구원>, <성경> 등	<민주주의>, <선거구>, <가계>, <정기적금>, <가정법원>, <고소> 등	
어휘의 미론	의미 유형	어휘의 개념적 의미(누구나 똑같이 알고 있는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다.	어휘의 연상적 의미(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를 개념적 의미와 구별하여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다.	어휘의 주제적 의미(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를 개념적/연상적 의미와 구별하여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다.
	어휘 관계	<먹다>의 개념적 의미	<먹다>의 연상적 의미	<기쁘다>의 주제적 의미
		서로 관련되는 어휘 사이의 의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상의어와 하의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다.	반의어와 동의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토론할 수 있다.
의	<주다>와 <받다>의 의미가 관련성	<동물>과 <개/고양이>의 관계	<주다>, <받다> 반의성, <가로-선-직선> 동의성	
	의미 변화가 왜 일어	의미 변화의 결과로	의미 변화로 어휘가	

문장의 미론	미 변화	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의미가 확대/축소되거나 전이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예를 실제 의사소통에 적용할 수 있다.	긍정적/부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예를 실제 의사소통에 적용할 수 있다.
		<나쁘다>와 의미변화	<주전자>의 의미변화	<중독>의 의미변화
	문장의 미	문장의 의미가 단순히 단어를 합한 것보다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고 이를 적절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문장을 접속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접속문을 활용하여 토론할 수 있다.
		<영희>+<철수>+<부르다> ≍ <철수 영희-부르다>	<철수-축구-좋아하다>의 기본문장의 미	<철수-축구-좋아하다-영희-야구-좋아하다>의 확대문장 의미
	문장 특성	한국수어 문장의 특성(조사나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수어의 문장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한국수어의 문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능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해 문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기차-빠르다>의 조사, 어미 미사용	<아버지-오다> <저-남자-누구> <진실-말해라> <밥-먹다-자> 등	청유문의 <-자> 의문문의 <-냐> 등
	관용 표현	관용어(맥락에 따라 원뜻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관용구(맥락에 따라 구성요소의 원뜻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구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속담, 격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구슬>[거절, 반대] <빠>[핵심, 중요점, 저의]	<손-부러지다>[바쁘다] <소문-1초>[소문이 빠르다]	<시간-금-이다> <산-파다(반복)-보물-잡다>[한 우물을 파다]/[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

참 고 문 헌

- 구본관 외(2016),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구종남(2002), 「보조용언 ‘빠지다’, ‘터지다’, ‘제끼다’에 대하여」, 『국어문학』 37, 5-30면.
- 김주식(2003), 『의미론의 길잡이』, 한국문화사.
- 김현주(2016), 「대화합축을 유발하는 국어 표현 항목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1995),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361-419면, 국어학회.
- 서정선(1980), 「분석-종합명제의 구분과 수행적 발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엄영섭(1991), 「국어 어휘의 동의중복 현상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원(1989), 『국어 보조조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형설출판사.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 이미순(2009), 「항진명제 발화의 해석에 대한 재검토」, 『담화와 인지』16-2, 123-147면.
- 이성범(2002), 『영어화용론』, 한국문화사.
- 이정애(2010), 「국어 항진명제에 대한 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 33, 한국어의미학회, 179-202면.
- 이정애(2013), 「국어 항진명제의 통사유형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87, 한국언어학회, 65-93면.
- 전혜영(2012), 「국어 담화에 나타나는 ‘X는 X다’ 표현 양상」, 『국어학』 64, 국어학회, 273-299면.
- 최슬기(2013), 「보조동사의 의미 생성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최중열(1992), 「항진명제(tautology)의 의미해석」, 『전주대 인문과학연구』 창간호, 139-150면.

Carnap, Rudolf(1956), *Meaning and Necessi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le, Peter(ed.)(1981),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Fraser, Bruce(1988), Motor oil Is Motor Oil: an account of English nominal tautologie, *Journal of Pragmatics* 12, 215-220.

Geeraerts, Dirk(2010),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2013), 『어휘의미론의 연구 방법』, 경북대학교 출판부.

Goddard, Cliff, and Anna Wierzbicka(eds)(1994), *Semantic and Lexical Universals: Theory and Empirical Findings*. Amsterdam: John Benjamins.

Goddard, Cliff, and Anna Wierzbicka(eds)(2002), *Meaning and Universal Grammar: Theory and Empirical Findings vols 1 and 2*. Amsterdam: John Benjamins.

Goddard, Cliff, and Wierzbicka, Anna(2014), *Words & Meanings : Lexical Semantics across Domains, Languages, & Cul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J. Shostak(1968), *Concise Dictionary of Current American Usage*,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Levinson, Stephen(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익환·권경원 옮김(1991), 화용론, 한신문화사.

Levinson, Stephen(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A: MIT Press.

Okamoto, Shigeko(1991), Nominal ‘Tautologies’ in Japanese. In *Proceedings of the 17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218-229.

- Ward, Gregory·Julia Hirschberg(1990), A pragmatic analysis of tautological utterances, *Journal of Pragmatics* 15, 507-520.
- Wierzbicka, Anna(1987), Boys will Be Boys: “Radical Semantics” vs “Radical Pragmatics”, *Language* 63, 95-114.
- Wierzbicka, Anna(1988), Boys will be boys : A rejoinder to Bruce Fraser, *Journal of Pragmatics* 12, 221-224.
- Wierzbicka, Anna(2003[1991]), *Cross-Cultural Pragmatics, The Semantics of human interaction*, Mouton de gruyter. 이정애 외 옮김(2013), 『다문화의사소통론』, 도서출판 역락.
- Wittgenstein, Ludwig J(1961), *Tractatus :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D.F. Pears & B.F. McGuinness.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 Wong, King-on, John(2006), *Semantics and pragmatics of tautology in Cantonese*, The University of Hong Kong.
- Yoon, Kyung-Joo(2006), *Constructing a Korean natural semantic metalanguage*, Seoul: Hankook.
- Yoon, Kyung-Joo(2007), Korean Ethnopsychology Reflected in the concept of Ceng 'affection': Semantic and Cultural Interpretation,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14-3, 81-103.
- Yoon, Kyung-Joo(2008), The Natural Semantic Metalanguage of Korea. In Cliff Goddard(ed.), *Cross-Linguistic Seman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121-162.

【Abstracts】

The Direction and New Model of KSL Curriculum for Deaf Adults

Youn, soegm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orrect direction of the KSL(Korean Sign Language) curriculum for Deaf adults and to set up a new model of KSL curriculum based on it. The establishment of the KSL curriculum is most urgent in order to provide and educate Korean Sign Language as stipulated in KOREAN SIGN LANGUAGE ACT which was made in 2016 at last. However,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effective KSL curriculum, the education and dissemination of KSL are being operated on a temporary basis, depending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demanders. The content of education is also based simply on sign words, so there is no systematic education on all units of KSL like as morph, word, phrase, sentence, expression etc.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article examines the correct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KSL curriculum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the development of the KSL curriculum especially for Deaf adults, and suggests the actual model of the KSL curriculum centered to the sign semantics. In order to develop a proper KSL curriculum, it is important to clarify goals of education and finalize learners of education.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content elements can be taught in a manner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SL according to the fitting level of education.

Key words : KSL(Korean Sign Language), Deaf adults, curriculum, goals of education, content elements, manners of education, sign semantics

이 논문은 2018년 09월 1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11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